

*반주음원QR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박정관



1. 형제모습속에 보이는 하나님형상을 다와라
2. 우리의모양중에 임하신 하나님영광



존귀한주의재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존귀한왕이여기게 시니

Copyright (C) 박정관 . Used by Permission



암송구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창 45:8)

트랙터 가정예배 일지

일시	참석자
기도제목 응답내용	



대한예수교
장로회

금촌교회

트랙터 가정예배문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라 (창세기 45:1~8)



1

함께
찬양하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 370장)

- 1) 주안에 있는 나에게 탄 근심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 2)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 3) 내 주는 자비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 주시네
 - 4)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 후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반주음원QR



2

함께
본문 읽기

창세기 45:1~8

1)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2)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3)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 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4)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
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5)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6) 이 땅에 이 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오 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7)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
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3 함께 생각하기

인도자가 읽어줍니다

20세기 초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대학에서는 <인생의 방향성에 대한 고찰>이라는 철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강의를 맡아 수업을 준비하던 담당 교수는 도서관에서 자료를 챙겨 자신의 책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서가 자신의 책상 위에 가져다 놓은 <콩고 선교의 필요성-파리선교사협회>라는 이름의 짧은 책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교수는 책자를 단숨에 읽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자신의 일기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이제 나의 강의는 끝났다. 내 인생의 방향성은 정해졌다.”

이 사람은 바로 195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아프리카의 성자’ 알버트 슈바이처였습니다. 다방면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던 그는 철학, 신학, 의학, 음악 분야에서 모두 박사학위를 갖고 있었고 오르간 연주자로도 명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인생 후반전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때마침 비서가 갖다 놓은 콩고 선교 책자가 슈바이처 박사의 결단을 촉발하였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말씀하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일에도 주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섭리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깁시다.

4 함께 관찰하기

성경 본문을 보며 빈칸을 채웁니다

① 하나님이 큰 □□으로 당신들의 □□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 보내셨나니

②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이시라 □□□이 나를 바로에게 □□□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로 삼으셨나이다

5 함께 나눠보기

질문에 따라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 ① 최근에 나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되지 않아서 힘든 일이 있었다면 함께 이야기하며 서로 격려해 봅시다
- ② 꿈의 사람 요셉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닫게 된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지만 언제나 성실과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루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었는데 놀랍게도 요셉의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였고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되었습니다.

그 후로 2년이 지나서 바로 왕이 꿈을 꾸고 크게 번민하고 있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떠올렸고 그를 천거하였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하여 주면서, 앞으로 7년간의 큰 흉년이 있을 뒤에 7년 동안 큰 흉년이 있을 것이므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 잘 대비하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바로는 요셉이야말로 이 모든 일을 처리할 적임자라고 여기고 그를 애굽의 총리대신으로 삼았습니다. 마침내 요셉의 꿈은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뒤로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오게 되었고, 마침내 형제들은 조우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혔을 때 형들은 깜짝 놀라 당황하였습니다. 이때 요셉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5절). 이 말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참 귀한 신앙고백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섭리’를 확신하며 꿈을 이루어 가는 멋진 인생을 살아갑시다.

6 함께 기도하기

마무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때때로 우리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요셉의 삶을 놀라운 섭리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옹골차게 바라보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